



프로그램

제1부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

사회 : 박중훈(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제1부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내빈소개	사회자
		환영사	조희연 : 서울특별시교육감
	14:00 ~ 14:40	축사	정진성 :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예원 : 학생참여단 대표
		축하영상	축하메시지
		경과보고	윤명화 : 학생인권옹호관
		'서울 학생인권의 날' 선포	교육감 및 교육공동체 대표
		기념촬영 및 휴식	-

제2부 교육감과의 토크콘서트 (서울 학생인권의 현재와 미래)

사회 : 노정렬(방송인)

제2부	14:40 ~ 16:00	개최배경 및 진행방식 소개	사회자
		토크콘서트	교육감, 참석자
		폐회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바로 4년 전 오늘 1월 26일, 학생인권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바람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는 안착되었으며, 우리는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새로 임명하였으며, 이의 연장선에서 2016년에는 학생인권옹호관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인권, 성인권 분야까지 포괄하는 학교인권문제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인권담당관 및 성인권정책 담당관을 개방직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것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온전히 구현되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타율적 강제로 사람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반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경험을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할 수

“한 가지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리원(Only One) 교육’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가능한 학교와 가정이 비로소 ‘인권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랄 만큼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액션 플랜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신년사에서 ‘불구일격(不拘一格)’이란 말을 올해의 화두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리원(Only One) 교육’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구현은 ‘온리원 교육’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의 꽃이 더욱 활짝 피길 응원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나란히 어깨동무 해주십시오! 함께 감사!

고맙습니다.

2016. 1. 26.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진성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날을 기념해서, 학생인권의 날로 제정하여 선포하신 서울특별시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줄 경사입니다.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2016년 1월 26일 학생인권의 날이 제정되었으니,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의 날 제정 뿐 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인권분야 인력과 업무를 크게 확대하여 학생인권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사회에 널리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인권이 실현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경쟁사회에서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을 존중할 때 자기 자신도 존중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의식과 태도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높은 시민의식으로 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선진사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인권이 실현된 학교가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입니다.”



라는 작은 약속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학교를 꿈꿔보았습
니다.

1. 아침에 눈을 뜨면 가고 싶은 즐거움이 있는 학교
2.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
3. 다른 사람의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나의 개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이 있는 학교
4.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쉬운 여운이 있는 학교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서 꿈으로만 남지 않도록,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
인권의 날 제정을 계기로 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위원회를 믿고 찾아
주십시오.

올 한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시길 빌며, 내년 학생인권의 날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서로의 발전을 자축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2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진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내·외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새해에 우리는 참으로 뜻 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변화와 마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된 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현장과 교육계 곳곳에서 학생인권 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웃음을 찾았고, 꿈을 키웠으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학생·학부모·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와 여러 기관·단체가 합심한 결과이며, 모두의 눈물과 땀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희망의 불빛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학생을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입시 만능주의 빠져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는 책임이 수반됨을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존감을 고취시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권리는 책임이 수반됨을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합심하는 협동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각자의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의 기념식을 계기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를 환영하며 고생하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 여러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 문 수



안녕하십니까, 제4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대표 김예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모두 생각만 하던 것이 누군가의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누군가 누군가가 모여서 큰 움직임이, 큰 목소리가 되고, 결국엔 이렇게, 큰 힘을 갖는 학생인권조례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 4년 동안 우리 학생들은 학생참여단의 이름으로 인권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1기 선배님들도 계시고, 2기, 3기, 그리고 지금의 4기까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준히 활동을 해온 많은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늘어나는 건 몇 기 몇 기 하는 숫자 뿐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 학생인권과 관련된 활동의 수, 이런 것들이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만 하더라도 참여하게 되는 활동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특히 이번 4기에는 큰 토론회도 많았고, 다른 기구와 함께 손잡고 진행된 행사도 많았죠. 아마 1기 선배님들이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교육감님도 점점, 해마다 저희가 참석해주시라고 초대하는 일정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주목할 점은 이런 게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 자리에서 뿌듯하게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예요.

“누군가 누군가가 모여서 큰 움직임이,
큰 목소리가 되고, 결국엔 이렇게, 큰 힘을 갖는
학생인권조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4년 전에 이 행사를 열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활동은 번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이만큼의 적은 사람이 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다면, 이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시켜왔을 거예요. 또 이만큼 많아진 사람들은 또 자기 주변으로, 주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참여단 위원님들도, 아마 희망총회라던가, 토론회라던가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나 어제 이런이런거 했다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해봤던 경험 많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번져가는 거예요.

지금엔 이만큼의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1년, 1년,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과 생각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조례는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거예요. 더 뜻 깊어질 학생인권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시고 고생해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2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대표 김 예 원

서울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이며,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는 2012년 1월 26일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삶과 생각을 존중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아동권리협약, 헌법 등 국내·외 규범에 입각하여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오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교실,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학생인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나, 학생 자치 및 참여는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견해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도록 교육공동체는 노력한다.



하나, 학생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학생에 대해 가혹하고 모욕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도록 교육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하나, 학생의 인권문제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며, 교사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자로 참여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는 학생인권 침해의 예방 및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하나,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여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조례제정일인 1월 26일로 지정하여 선포한다.

2016. 1. 26.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 학생인권조례 경과보고

윤명화 _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보고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명 추진(6개월, '10.10.27)
- ✦ 법제심의회, 법정 인원 충족(97,702명)으로 청구수리 결정('11.08.03)
- ✦ 주민발의안 시의회에 이송('11.09.30)
- ✦ 시의회 교육위 · 본회의 통과('11.12.19)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 시행(교육청, '12.01.26)
-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12.04.01)
- ✦ 제1기 학생참여단 발단식('12.05.17)
- ✦ 제1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12.05.31)
- ✦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공포(규칙 제822호, '12.06.22)
- ✦ 학생인권조례 공포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교과부→대법원, '12.01.26)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 시행('13.03.21 조례5440호)
- ✦ 헌법재판소 (학생인권조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기각' 판결('13.09.26)
- ✦ 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각하'('13.11.28)
- ✦ 제2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14.08.26)
- ✦ 제1대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취임('15.03.01)
- ✦ 제4기 학생참여단 발단식('15.04.10)
- ✦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15.10.05)
- ✦ 2015년 학생인권 상담 1,035건, 권리구제 198건, 교육 26,712명
-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확대, 개편('16.01.01)
- ✦ '1.2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선포('16.01.26)
- ✦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수립('16 연중)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구성

